

팀 원	팀 장	단 장	
			공 람

보도
매체

경기일보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화옹·시화 간척사업 흔들

정부, 내년 예산 대폭 삭감

화성시의 화옹·시화지구 간척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대폭 축소돼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화옹·시화지구 간척사업은 정부가 총사업비 1조2천300억원(화옹 8천200억원, 시화 4천100억원)을 투입해 22개년(1991~2012, 화옹), 14개년(1998~2012, 시화)간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40억원(화옹 246억원, 시화 2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농수산물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화옹·시화지구 인근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현재 농지로 계획된 간척지의 개발수요가 산업용지 등으로 변화될 것을 감안, 농지관리기금 예산 투자의 축소 방침을 정하고 내년 사업예산을 화옹 174억원, 시화 44억원으로 대폭 삭감편성하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지난달 28일 농수산물부 관계자와 만나 “수도권에 인접한 화옹·시화지구 간척지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규모 농업생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두 간척사업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력 요구, 화옹지구 200억원·시화지구 96억원으로 일부 증액시켰다.

그러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과 국회예산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원은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으로 총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방수제도로 개통지연 등 지역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며 사업 착수시 약속한 우량농지 보급이 지연돼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gib.co.kr